

땅이름의 뿌리



배 우 리

〈한국 땅이름학회부회장·외솔회 이사〉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땅이름에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바로 우리 고향의 이름이고 또 우리 마을의 이름인데도 그러하다.

땅이름은 그냥 편하게 불리면 그만이라는 생각들이다. 그 땅이름이 어떤 뜻을 지녔건 또는 어떤 역사적 사실을 간직했건 그런 것에 별로 아랑곳하지 않는다.

그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돌아보면 이 속에 우리말이 그대로 살아 있고 역사가 살아 숨쉬고 있음을 알게 된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숨소리까지 배어있음을 느끼게 된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뿌리를 돌아보게 하고 생각의 울타리안에 그 '옛날'을 잠시나마 잡아다 앉히고 싶은 충동에 빠질 것이다.

이처럼 우리 땅 이름에 얽히고 설킨 뿌리를 찾아 국토의 옛날과 오늘의 근원과 정서를 되살려보는 뜻에서 이번호부터 「우리 땅 이름의 뿌리를 찾아서」를 연재한다.
(편집자 주)

두루와 지리산

지리산은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인 방장산方丈山이라고도 했다. 봉래산금강산, 영주산한라산과 함께 신선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이 산의 원래 이름은 「우리산」인데, 두류산頭流山이라 했다가 구개음화에 의해 지리산으로 된다.

지리산의 여신 마야고

지리산智異山의 여신 마야고麻耶姑는

1) 한자 음대로 읽으면 '지이산'이나, 읽기는 '지리산'이라고 한다. 실제 음대로 '智理山'이라고 쓴 기록도 많다.

남신 반야般若를 사모하여, 그리운 반야의 옷 한 벌을 고이 지어, 만나서 전해 줄 기회를 찾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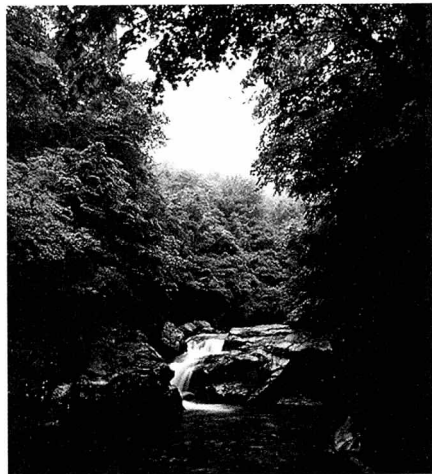
다. 그러나, 그 기회가 잘 닿지 않아 마음을 태웠다. 달밝은 어느 날 밤, 마야고는 지리산 중턱에 앉아 반야의 옷을 품에 안고 그를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때 꿈에도 그리던 반야가 자기쪽으로 손짓하며 걸어오는 것이 아닌가. 마야고는 바람에 나무끼는 꽃잎의 물결 속으로 반야의 옷을 든 채 달려갔다. 그리고, 정신없이 무릎을 잡을 듯이 허위적거렸는데 이상하게도 잡히는 것이 없었다.

정신을 차려 보니, 그리운 반야는 보이지 않고 쇠별꽃²들만 달빛 아래서 바람에 흐느적거릴 뿐이었다.

쇠별꽃의 흐느적거림을 반야가 걸어오는 것으로 착각한 것을 알게 된 마야고는 너무나 실망하여 두 손바닥에 얼굴을 파묻고 한 없이 울었다.

2) 나도개미자리과(石竹科)의 다년생 풀. 줄기가 연약하여, 땅에 눕고, 흰 판화가 여러 꽃대에서 피어난다.





마야고는 그 뒤로 자신을 속인 쇠별꽃을 다시는 피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정성껏 지어 두었던 반야의 옷도 갈기갈기 찢어서 숲 속 여기저기에 흩날려 버렸다. 또 매일같이 얼굴을 비취보던 산상의 연못도 신통력을 부려서 메워 없앴다.

마야고가 갈기갈기 찢어 날려버린 반야의 옷은 소나무 가지에 흰실오라기처럼 걸려 기생하는 풍란(風蘭)으로 되살아났는데, 특히 지리산의 풍란은 마야고의 전설로 「환란(幻蘭)」이라고 부른다.

3)天王峰. 천황봉(天
皇峰)이라고도 한다.

높이 1,915m

4) 지리산의 제2봉. 높
이 1,732m

천왕봉³에서 서쪽으로 바라보이는 반야봉⁴은 마야고가 늘 바라보고 반야를 생각했

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또, 마야고가 매워 버렸다는 못은 누군가가 천왕봉 밑 장터목에서 찾아내 「산희(山姬샘)」이라고 이름 붙였다.

마야고의 한과 노여움을 풀어주기 위해 고려 때 천왕봉에 사당을 세우고 여신상⁵을 모셨는데 일제 때 한 왜병이 군도로 그 코와 귀 하나를 잘라 버리려다가 신발을 받아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진다.

지리산에 얽힌 전설이다. 또, 고려 사(高麗史)의 악지(樂志)에 지리산가(智異山歌⁶)라는 백제 가요에

관한 기록이 나오는데 작자와 연대도 알 수 없고 그 가사도 전하지 않는다.

백제 때, 지리산녀(智異山女)가 남편과 단 둘이 구례(求禮縣)의 지리산 골짜기에 살고 있었다. 이 여인은 얼굴이 곱고 마음도 착했으며 집안에서 부도(婦道)를 다했다.

하루는 지리산으로 사냥을 나온 백제왕이 우연히 이 지리산녀를 보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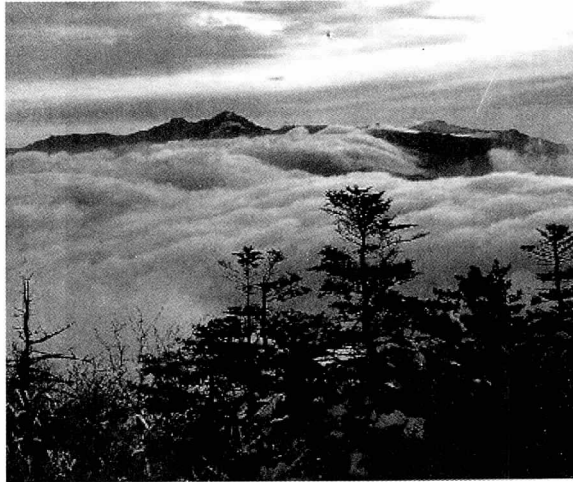
5) 여신상이 지금은 없어졌는데 한 하이텔 동호인이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산 아래 어느 민간인의 집에 있는 것으로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다고 한다.

6) 학계에서는 이것이 지리산에 대한 최초의 문학작품으로 보고 있다.

되었는데, 한 눈에 반하고 말았다.

왕은 지리산녀를 궁으로 데려가 후궁으로 삼으려 했으나, 그녀는 죽음을 각오하고 절개를 지켜 왕의 명령을 좇지 않았다.

결국 지리산녀는 끝까지 절개를 굽히지 않고 자신의 심정을 노래로 지어 부르면서 모진 형을 받고 죽어 갔다. 이 때 그녀가 부른 노래가 「지리산가」이다.



두류산과 지리산

우리나라의 모든 명산에는 그 나름대로의 전설이 있다. 또, 역사적 사실을 간직한 것도 적지 않다. 지리산도 명산이기에 예외는 아니어서 위와 같이 이야기가 후세에 전해 오는 것이다.

한반도의 남부에 자리잡아 '내가 왕이요' 라며 소백산맥 한 허리에서 머리를 불쑥 내밀고 어마어마한 산덩어리를 이룩한 지리산. 전북·전남·경남의 3개 도와 남원·구례·산청·

함양·하동의 1시 4개 군에 걸쳐 있고, 해발 1,915m의 천왕봉(天王峰)을 중심으로 반야봉(般若峰), 노고단(老姑壇) 등 많은 봉우리를 안은 지리산을 누구는 아예 산이 아니라 봉(峰)의 무리라 했다.

이렇듯 잘 알려지고 한반도 안에서 크게 손꼽는 산이건만 지리산이란 이름 유래에 대해서는 그리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지리산을 방장산(方丈山)이라고도 했다. 방장산은 봉래산(蓬萊山), 금강산, 영주산(瀛州山), 한라산과 함께, 신선들이

내려와 놀았다는 삼신산三神山의 하나이다.

지리산은 또 두류산頭流山, 남악산南岳山, 방호산方蒿山 등의 이름을 갖기도 했다.

두류산양단수兩端水를 예 듣고 이제 보니, 도화桃花 뜬 맑은 물에 산영山影조차 잠겼어라.

아희야, 무릉이 어디메뇨, 나는 엔가 하노라.

소식曹植 (1501~1572)

여기에서의 두류산은 바로 지리산이다. 그러면, 두류산과 지리산은 이름에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 의문은 먼저 호남지방의 방언 특징을 알아보면 쉽게 풀린다.

이 지방에선 발음에 있어서 구개음화가 아주 심하다. 즉, 형님을 '성님', 힘을 '심', 기름을 '지름', 길을 '질', 드새다(뜬 눈으로 밤을 지내다)를 '지새다', 디더를 '지더', 디밀다를 '지밀다' 식으로 발음하는 특징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지리산의 '지'도 '디' 또는 '드'가 구개음화한 것이 아

닌가하는 의문을 얻게 되며, 이 과정에서 지리산과 두류산(두리산)의 음운적 연관관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 두루 > 두리 > 드리 > 디리 > 지리

즉, '두류'는 '두루'를 음차音借한 것으로 보이며, 그 두루가 호남지방식음의 변화과정에 따라 '지리'까지 가게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지기도 한다.

두류산 또는 이와 비슷한 이름을 가진 산은 전국에 무수히 많다.

두류산이나 두류봉, 두류령은 함남 단천과 길주 사이, 함남 문천과 평남 양덕 사이, 강원 화천, 전남 신안, 전북 순창, 전북 임실과 순창 사이, 경기 이천, 강원 평창, 전남 나주, 경남 거창, 경북 영원과 맹산 사이 등 여러 곳에 있다.

두루봉은 전남 강진과 해남 사이, 강원도 태백산맥의 향로봉 남쪽, 명주와 양양 사이 등에 있고, 두리봉은 강원도 삼척, 정선과 명주 사이, 춘천, 평창, 전남 해남, 경기도 광주, 충북 보은과 옥천 사이, 충남 논산, 전북 전주, 전북 임실, 전남 영암, 대구, 경북 군위 등에 있다.

두로봉은 강원도 오대산에 있고, 두

륜산은 전남 해남, 두랑산은 강원도 삼척, 두룡봉은 평북 강계, 강원도 이천 등에 있다.

그런데, 이들 산의 특징을 보면, 산

봉이 둥글거나 산세가 그리 험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터를 둥글게 울타리치듯 다른 산과 함께 휘어돌고 있다는 점이다.



두류는 두루와 두리에서

두루와 두리 또는 그에 가까운 말을 옛말이나 사투리에서 그 뜻을 찾아보면 앞의 두류, 두리 등의 산이름과의 관련을 알아볼 수 있어 재미가 있다.

용비어천가 69장에 보면 '드르혜 용이 싸호아龍鬪野中, (들에서 용이 싸워라)는 말이 나온다. 여기에서 '드르'는 들의 옛말인데, 이 말은 지방에

사투리로도 남아 강원도에서는 '드루' 또는 '뜨루'라 하고, 함경도 지방에서도 '두루' 또는 '두뤼'라 한다.

'뜰'은 집안마당이란 뜻이지만, 전남이나 평북 지방에선 들의 사투리로 쓰이고 있으니, 이말이나 뜨락, 뜨란, 뜨렁 등도 모두 '뜰'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루, 두리를 들에 관계지어 설명했지만, 들은 원래 '뜰'에서 나온 말로

‘땅’ 또는 ‘산’의 뜻이다. 대구의 옛 이름 ‘달구벌’은 산으로 둘러싸인 들 분지의 뜻이다. 강원도 고성高城의 삼국시대 이름은 달골達忽인데, 달이 산이므로 ‘높다’의 뜻으로 취해 나중에 ‘고성’으로 바뀐 것이다.

종이를 가로 길게 이어 둥글게 돌돌만 물건을 두루마리周紙라 하는데, 여기서의 두루는 둥글게의 뜻이다.

- ‘늑치 두렵고 조호미 보름달 마트시며’
(낮이 둥글고 깨끗함이 보름달 같으시며)

(월인석보(二.56))

‘두렵고’는 ‘둥글고’의 옛말로, 그 원형에는 ‘두렷다’와 ‘두런다’가 있다.

이 말에서 ‘두리(둘레)’라는 말이 나와 ‘두리목’(등근재목), ‘두리반’(두레상), ‘두리새암’(‘우물’의 사투리), ‘두리 함지박’(등근 함지박) 등의 말을 파생 시켰고, ‘돌려가며 돕는다’는 뜻의 ‘두레’라는 말도 생겼다.

우리의 전통 옷 중에 두루마기가 있다. 주로 예복 또는 외출할 때 겹옷 위에 입는 한국 특유의 옷인데, 한

자로는 주의周衣, 주막의周蓐衣라고 해서 ‘둥글 주’자를 넣는다.

7) 두루 + 막(衣) >

두루막이 > 두루마기

그렇다고 보면, 산마루가 두리몽실 하거나 어느 고장을 울타리 치듯 둥글게 휘어돈 산을 두루산 또는 이에 가까운 음의 산이름으로 굳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아직도 두레산, 두른산, 도른산 들은산과 같은 방언 지명이 남아 있게 되고, 더러는 두류頭流, 두로斗露, 두룬斗輪 등의 한자식 산이름으로 표기하게 되었을 것이다.

두레산은 도레산과 발음이 비슷해서, ‘돌의산’으로 잘못 해석, ‘돌’의 음에 연유하는 돌산鬲山, 도라산都羅山, 도락산都樂山 등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 ‘돌’은 또 한자로 ‘석石’이라고 해서 석산石山, 석의봉石衣峰, 석우현石隅峴 등의 이름이 되기도 했을 것으로 보인다.



‘돌’은 음이 비슷하여 달이 되기도

‘돌’은 ‘달’과 음이 비슷해서 ‘월’로 되어 색다른 지명을 많이 낳았다.

서울 양천구의 신월동新月洞은 옛 이름이 ‘곰달내’인데, 여기서의 ‘곰달’

8 옛 지도에 ‘고음월’은 ‘곰돌’로 ‘큰
(古音月)로 표기돼 들(넓은 들)’의
있다. 뜻이었다. 그런데,
‘곰달’을 ‘고운
달’로 해석해서 한자로는 신월이 되
었다.

산이름의 월출산月出山과 월악산月岳
산은 ‘돌’ 또는 ‘돌’에서 나온 말

로 달과 아무 관계가 없다. 즉, 월
출산은

• 돌(뽕) > 달라뽕 > 달나뽕 > 달내뽕 >
월출

의 과정으로 된 이름이고, 월악산月
岳山은

• 돌(뽕) > 달앗뽕 > 달악 > 월악

의 과정을 거쳐 정착된 이름이다.

월출산이 있는 영암군만 해도 월평
月坪, 월곡月谷, 매월梅月 등의 월(자) 지
명이 많고 그 이웃의 함평군에도 월산
月山, 월봉月峰, 월천月川 등 ‘ ’에 연유

하는 많은 지명들이 있다.

영암군의 옛 땅이름은 ‘산의 고을’이란 뜻의 ‘돌낫골’인데 ‘돌’은 달月이 되고 ‘낫’은 ‘내’가 되어 월내군月奈郡으로 되었다가 월은 ‘얼’과 발음이 비슷해 ‘영靈’을 취해 영암으로 된다.

고구려 때의 땅이름 중에 達의 음이 들어간 것이 많았는데, 삼국통일 후인 신라 경덕왕 때 모든 지명을 한자로 붙이면서 대개 산山자가 들어간 지명으로 바뀌었다. 즉, ‘낫은 산’이란 뜻으로 보이는 안달(벚달), 석달昔達이 난산蘭山으로 ‘소나무산’이란 뜻인 듯한 부사달夫斯達이 송산松山으로, ‘수풀이 우거진 산’이란 뜻인 듯한 건달加支達이 황산荒山으로 바뀐 것이다.

대구의 옛이름 달구達丘는 달과 구가 모두 산이라해서 큰 언덕이란 뜻의 대구大邱라 했다가 구丘가 중국의 공자孔子의 이름자라 해서 구邱로 바꾸어 대구大邱로 한 것이다.

박달朴達, 승달僧達, 유달儒達, 동달東達, 달이達伊 등의 ‘달’도 모두 ‘산’의 뜻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 햇빛이 드는 곳과 안드는 곳을 가리켜 양달, 응달이라 하는데 여기서의 달은 땅을

가리키는 것이다.

백두산 맥이 흘러 ‘지리’ 되고

대흥사大興寺가 있는 호남의 명산 두류산은 문헌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백두산의 지륜地輪(지리)이 흘러 지리智異가 되고, 천관天冠(장흥군에 있는 산)이 되며 다시 두류頭輪(지리)이 되므로 백두白頭라고도 한다.

〈신중등국여지승람남원 도호부〉

이로보아, 두류산이 지리산과 동의어가 됨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전국에는 ‘달’ 또는 ‘돌’의 음을 취한 땅이름들이 무척 많다. 이러한 이름들이 산이나 고지高地에 많은 것으로 볼 때, 이 ‘달, 돌(두리)’이 산과 관련한 옛말임을 생각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지리산도 두류산과 같은 이름이라고 한다면, 산이름도 ‘돌’ 또는 ‘두리’, ‘두레’와 같은 옛말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근원적으로는 산의 뜻을 포함한 이름이다. ㄸ